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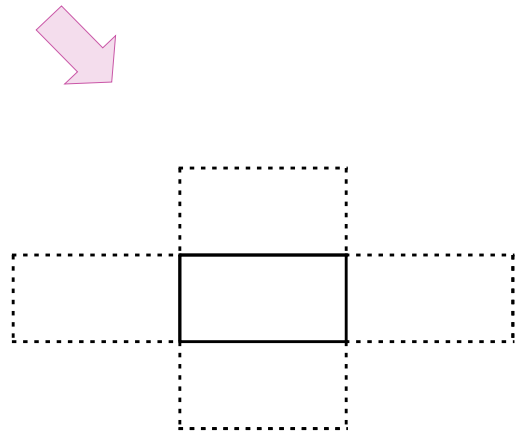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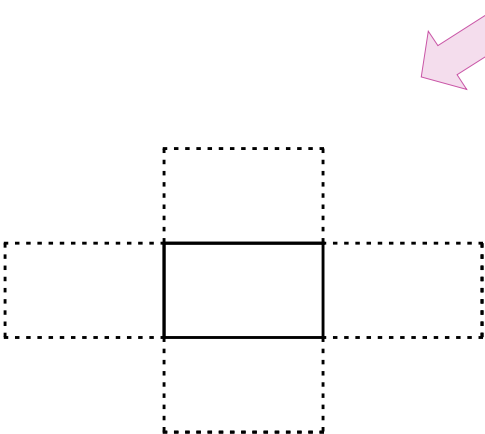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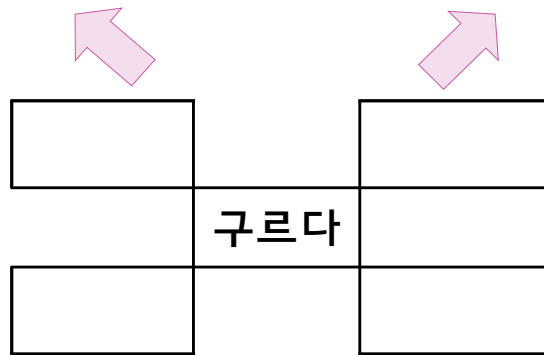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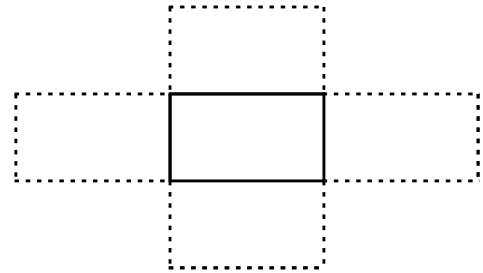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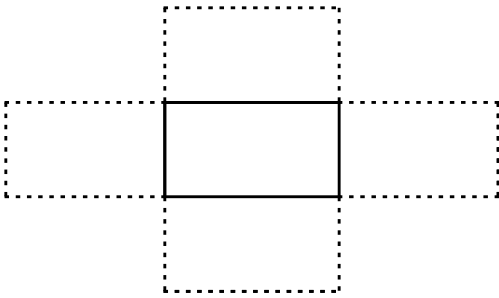


[오늘도 구르는 중]
김지우 글, 이해정 그림, 풀빛

읽기 전 활동

학년 반 이름

1. '구르다'와 연관해서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각각 중심에 놓고 연상되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2. 나를 소개하는 일은 언제나 긴장이 되지요. 이 책의 주인공도 처음 건네는 인사는 떨린다고 고백해요. 주인공에게 나를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채워보세요.

안녕? 처음 건네는 인사는 언제나 떨려. ‘어떻게 해야 나를 잘 보여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지거든. 내 소개를 듣고 있을 네게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할 테니, 내 소개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내 모습을 천천히 그려 봐. 스무고개를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야! 서로를 잘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친해질 수 있을 테니까.

처음 인사할 때 주로 하는 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되고 싶은 모습	
나에 대해 꼭 알려주고 싶은 것 (또는 하고 싶은 말)	

3. 작가는 휠체어를 타고 굴러다니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구르’라는 별명을 지었어요. 책 제목이 『오늘도 구르는 중』인 것과는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오늘도 ~하는 중’이 들어가는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3문장 정도)



[오늘도 구르는 중]
김지우 글, 이해정 그림, 풀빛

읽기 중 활동

학년 반 이름

1. 지금 다니는 학교에 가기 위해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였나요? 아니면 집과 가까워서 다니게 되었나요?
2. 만약에 내가 다닐 학교가 가까운 곳에 없어서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직접 찾아다니면서 알아봐야 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 장점	☆ 단점

3. 주인공은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한 학교를 선택하려면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요.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하는 휠체어를 탄 친구에게 알려준다 생각하고 학교를 둘러보면서 시설을 설명하는 글을 써보세요.

어느 학교는 너무 높은 산꼭대기에 있었고, 어느 학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지. 어느 학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고, 어느 학교는 급식실로 가는 길이 계단이었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찾는 것부터가 마치 아주 어려운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 같았어.

원래 입학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어젯밤에는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듣기도 했어.

“오늘 가본 곳은 오래된 학교라 그런지 조금 시설이 불편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도 너무 구석에 있고...”

“그렇지만 화장실은 넓은 칸이 층별로 있더라고요. 교실 문턱도 없어요.”

“그건 맞아요. 교장 선생님도 온화해 보이셨어요.

.....(이하 생략) (21쪽)



4.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고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다를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갈 수 있어요.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곱슬 머리이고 누구는 주근깨가 있고 누구는 안경을 쓰고 누구는 보청기를 끼지.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봐.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0개의 세상이 있는 것이지.

우리, 서로의 경험을 나눠 보면 어떨까? 네가 ‘너’일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도 알 수 있을 거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 바꿔 볼 수도 있겠지.

우리, 친구가 되어 보지 않을까? (14쪽)



어떤 어려움을 가진 친구와 경험을 나눠 보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보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과 이유를 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 입장에 더 공감이 가는지 의견과 이유를 적어보세요.

<p>“엄마, 저 사람들은 왜 싸우는 거예요? 엄마는 속상해하는 표정으로 대답했지.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지으려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 학교 짓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 (25~26쪽)</p>		
<p>나는 _____ 입장에 공감한다. 왜냐하면 _____</p>		

6.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가요?



7. 다음과 같은 상황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결해 나갈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하려고 노력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노력해. 그렇게 우린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 가.

그런데 이럴 때는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곤 해.

“야, 이 장애인아!”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쳤어. 나는 깜짝 놀라서 그쪽을 쳐다봤지. 장애인이라니, 나를 두고 하는 말일까?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어. 자기들끼리 장난치던 남자아이들이 서로를 놀리면서 하는 말이었거든.



드는 생각:



제안하고 싶은 방법:

8.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된 점과 생각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일지도 몰라요.

알게된 점	
달라진 생각	



[오늘도 구르는 중]
김지우 글, 이해정 그림, 풀빛

읽기 후 활동

학년 반 이름

1. 이 책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이 많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을 고르고 그 문장을 고른 이유도 써주세요. (긴 글도 좋아요. 쪽수 표기)

기억에 남는 문장	
이유	

2. 책을 읽은 후의 감상이 드러나게 주인공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적어주세요.